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바른 교훈을 버린 자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 안팎에는 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였다. 로마 교인들은 바른 교훈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의 바른 교훈을 배웠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한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엡 2:20). 역사적 기독교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바른 교훈이다. 우리는 그 역사적 기독교 즉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15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고 말했다.

사도들의 바른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이단자들이다. 그들의 교훈은 사도들의 바른 교훈과 차이가 있고 기독교회 안에 사상적 분열을 일으킨다. 그것은 교회에 혼란과 분쟁의 씨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된다. 교회에서는 교훈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물론, 그 통일된 교훈은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이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을 살피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말했다(요일 4:1).

우리는 사도들의 바른 교훈을 버린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디도서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거절하라].” 요한이서 9-11, “지내쳐[이탈하여](전통본문)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우리가 이단자와 교제치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란 바른 교훈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른 교훈은 사랑의 교제보다 더 중요하다. 만일 우리의 교제가 바른 교훈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리와 비진리의 혼잡이 생기고 비진리와의 타협이 생기게 된다. 교회가 오류들을 포용하면 영적으로 헤이해지고 부패하고 속화되기 시작한다. 이단자와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허용하시는 교제가 아니다. 그런 교제는 단지 마귀에게 이끌려 혹은 사람의 무지와 연약 때문에 생길 뿐이다. 진리와 오류는 결코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단자와의 교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자들,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 즉 이단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면, 생각이 같았을 것이다. 한 성령께서는 그들을 일치된 바른 교훈 안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물질적 이익만 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근본이 다르다. 그들은 진리주의가 아니고 육신주의이며, 내세주의가 아니고 현세주의이다.

또 이단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란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을 뜻한다. 이단들은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을 잘한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들의 말만 들으면 그들은 선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 같아 보인다. 마귀는 지혜롭다. 그래서 이단자들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단자들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단자는 미혹케 하는 자, 곧 속이는 자이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나 사탄과 악령들이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과 이단은 그 뿌리가 각각 다르고 그 내용도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이런 미혹의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허용해 놓으면 그것이 누룩처럼 교회에 퍼져 교회를 부패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성경의 바른 교훈으로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한다. 이 절교(絶交)와 분리는 교회의 기록함과 영광과 능력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있는 대표적 이단들은 첫째로 천주교회이며, 둘째로 수많은 이단종파들,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등이며, 셋째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다.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은 오늘날의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다. 로마에 사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순종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다. 이것은 기쁜 일이었다. 바울도 그 소문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 소문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실천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그 성도의 믿음의 진실함을 알 수 있겠는가?

이단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문제도 결국 순종의 문제이다. 이단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주신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자들과 교제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단자들을 포용하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오늘날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지혜로운 성도는 아무 교회에나 속하지 않고 아무 집회에나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사들의 교훈들을 분별해야 하고 성경의 바른 교훈을 버린 이단자들과 비성경적 오류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였다. 순종의 결과는 선한 것이며, 불순종의 결과는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일과 그를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일이며, 악한 것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우리는

악한 것, 곧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일에는 미련하고 둔할수록 좋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선한 생활과 내세의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더 바르게 분별하며 알수록 유익하다. 우리가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이단자들의 이단 사상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을 것이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은 모든 악들의 배후 조종자이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요 12:31), ‘이 세상의 신’(고후 4:4),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엡 2:2), 또 ‘온 천하를 피는 자’(계 12:9)이다. 성도를 거짓된 교훈으로 속이는 이단들의 근원은 사탄이다. 사탄은 모든 거짓말들의 근원이다.

평안의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적 안정, 환경적 평안을 주신다. 교회 안의 교리적 논쟁들에서 진리를 드러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교리적 논쟁들에서 항상 진리 편에 서신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사탄을 우리 앞에서 굴복시키실 것이다.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가 속히 오실 것이다. 히브리서 10: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사탄을 지옥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계 20:10). 다시는 사탄의 속임과 죄와 사망이 없는 의와 평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바른 교훈, 즉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바른 교훈, 즉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개혁신학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오늘날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도 바른 교훈의 기본적 내용이다. 우리는 그 개혁신학의 바른 교훈을 잘 지켜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분별해야 한다. 잘못된 교훈은 바른 교훈에서 이탈한 것이다. 오늘날 바른 교훈을 버린 자들은 첫째로 천주교회이며, 둘째로 여러 이단종파들이며, 셋째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것들은 다 이단적이다. 이단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

고 자기의 배만 섬기며 공교하고 아침하는 말을 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다(18-19절). 우리는 성경의 바른 교리를 통해 이단들을 분별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버린 이단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거나 협력해 일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단들과 교제하며 함께 활동하는 교회연합운동과 타협적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도 경계해야 하고 실상 그런 자들과도 교제를 끊어야 한다.

주일오후학교 르비딤에서의 사건들

[출애굽기 17:1-3]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때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세와 다투며 그를 원망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경외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와 다투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며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참고 기다렸을 것이다.

[4-7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모세에게 돌질할 정도까지 되었다. 한 때는 모세를 향해 감사하게 생각

하고 그를 존중하며 따랐을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돌변했다. 이것이 무지하고 믿음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모세는 마음의 큰 고통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는 환난에 대한 최선의 대처 방법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하셨다. 그것은 백성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그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뜻이다. 둘째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다.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자이다. 그들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유익했다. 셋째는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셨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귀한 신구약성경이 있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믿고 실천하면서 담대히 살아야 한다.

넷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관여하시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즉 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 모든 백성으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기이한 능력의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맛사’ 혹은 ‘프리바’라고 불렀다. ‘맛사’는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이고, ‘프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다.

이 반석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영생의 물을 예표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했다(고전 10: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힘과 위로이시다.

[8-9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원망했던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지손들이다

(창 36:12, 16). 침략 전쟁은 악하지만, 방어 전쟁이나 정의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성을 가진다. 아말렉은 악한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방어 전쟁을 치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기도하겠다는 뜻이다.

[10-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 . .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모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원문에 ‘손’이라는 말이 단수인 것을 보면, 모세가 양손을 든 것이 아니고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들었던 것 같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모세의 믿음의 표시이며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 승리와 실패는 단순히 혼란된 병사들이나 뛰어난 전쟁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

[12-13절] 모세의 팔 손들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왼손들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왼손들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다. ‘팔’이라는 원어는 ‘손들’이라는 뜻이다. 모세는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들었던 것 같고, 그는 그의 두 손이 다 피곤하였다. 그때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좌우에 서서 그의 피곤한 손들을 붙들어 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의 손은 피곤할 수밖에 없었으나,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계속 높이 들렸다. 주의 일에 있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과 기도를 돕는 것은 복되다. 마침내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파하였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자신에게서나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4-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 . .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 사건이었다. 이것은 책에 기록되어 후대에 교훈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읽고 교훈을 받고 있다. 모세는 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불렀

다. ‘여호와 닛시’라는 원어는 ‘여호와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셨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

출애굽기 17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맛사와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믿음 없이 모세와 다투며 그를 원망했으나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모세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마실 만한 풍성한 물이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시험하는 죄가 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해야 한다.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짐짐히 기다려야 한다.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과 다투고 사람에게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둘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있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무엘상 17:47,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영적 전쟁도 그렇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써 싸워야 한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게 하였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 땅 위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다. 우리의 원수들은 마귀와 악령들이다(엡 6:10-20). 우리는 마귀와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깃발이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것이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 그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었다. 그들의 합심과 협력은 그 전쟁 승리에 필요했다. 합심기도를 한 셈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뜻과 힘을 같이할 동역자들이 필요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합심하고 협력해야 한다.